

빠른 정답

[제12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④	5	⑤	6	⑤
7	④	8	③		

[제13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④	2	④	3	④
4	①	5	①	6	③
7	④	8	③		

정답과 해설

[12회차]

아인슈타인과 보어 양자이론 논쟁

1. 답 ①

정답

① 글은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을 의심하는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입장'을 제시한 뒤, 이중 슬릿·광자 상자-EPR 사고실험과 반박을 토한 논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② 개념 정의→조건 나열 방식이 아니라, 한 입장과 그 근거가 중심이다.
 ③ 각 사고실험은 실제 '증명 절차'가 아니라 논증용 가정이며, 순차적 실험 보고서 형식이 아니다.
 ④ 연대순 배열이 드러나긴 하지만, 연대기는 특정 현상에 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담고 있지는 않는다.
 ⑤ 양측을 장·단점으로 평가하지 않고, 입장과 반박을 교차 제시할 뿐이다.

2. 답 ④

정답

④ 보어는 얽힘 상태에서 '실제 물리적 충격'이 전달된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두 입자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국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해설

- ① 1문단에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수학적 정합성은 인정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위치를 정밀 측정하면 운동량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불확정성 원리에 부합한다.

- ③ 보어의 반박에 따르면 한 관찰로 경로와 간섭 무늬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
 ⑤ 아인슈타인은 EPR 역설을 근거로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3. 답 ③

정답

③ 시간 불확실성을 줄이면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에너지-시간 불확정성 관계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보어는 중력장 변화가 시계의 '시간 정확성'을 흐린다고 했지 위치 정밀도와는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 위치 정밀도는 이중 슬릿 사고실험과 관련이 있다.
 ② 에너지와 방출 시점은 불확정성으로 얽혀 '독립적'이 아니다.
 ④ 아인슈타인은 사고실험에 따르면 두 물리량을 동시에 정밀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불가능'이라는 진술은 글과 배치된다.
 ⑤ 보어는 일반 상대성원리를 활용해 불확정성 원리를 '보호'했지 무력화하지 않았다.

4. 답 ④

정답

④ 보어의 '예측 가능성' 해석은 질적 수준에 머무르므로, 얽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벨 부등식 위배까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가장 타당하다.

오답해설

- ① 벨 부등식 위배는 국소적 결정론을 추구한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오히려 반박한다.
 ② 실험 결과는 양자역학의 비국소성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며, 아인슈타인이 비국소성은 유령같은 원격 작용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보어를 반박할 수는 없다.
 ③ 벨 부등식 위배와 이중 슬릿 사고실험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위배 결과는 양자역학의 '비결정론·비국소성'을 지지할 뿐, 결정론을 옹호하지 않는다. 또한, 보어는 '비결정론'을 옹호하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EBS 수능특강 121쪽 연계 작자 미상, 「숙향전」

5. 답 ⑤

정답

④: 이선은 개에게 남자를 잘 보호하여 달라며 숙향을 보호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뒷글에서 노파를 향한 숙향의 질문은 '할머니는 어떻게 내 과거를 그리 자세히 알고 있나이까?'뿐이다. 하지만 노파는 이에 관해 남들이 말하기로 듣고 알았다며 대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숙향에 질문에 자세히 답변하는 모습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숙향이 자신이 '본디부터 부모가 없는 고아'라 하자 노파가 '네 부모가 반야산에서 너를 버리고 갔는데'라며 숙향의 말을 간파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책망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다.
 ③: 숙향은 '배가 고과 민망하옵니다.'라며 말을 했을 뿐, 노파에게 나물을 줄 것을 간청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숙향은 개에게 '내가 아무리 짐승이기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었느냐?'라 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개를 꾸짖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숙향이 개에게 자신을 두고 사라진 것에 대해 꾸짖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답 ⑤

정답

⑤: [B]의 필자인 이선은 자신이 과거에 응시하고 급제한다면 숙향에게 그 은혜를 갚겠다고 전하고 있다. 이것은 이선이 과거에 응시한다면 은혜를 갚겠다고 전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A]의 필자인 숙향은 '나의 신세여 죽고자 하나 죽을 땅이 없구나!'라며 [A]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B]의 필자인 이선은 '남자의 이렇듯한 괴로움이 모두 나로 말미암은 것이요.'라며 독자인 숙향이 고난을 겪은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A]의 필자인 숙향은 자신이 오 세에 부모를 잃고 동서로 표박했으며 할머니를 의지했으나 할머니가 죽음을 [A]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숙향이 겪은 고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B]의 필자인 이선은 [A]를 읽고 할머니가 죽은 줄 알고 낙망하였으며 [B]에서 이를 '할머니 죽었다는 소식은 나로 하여금 심신을 혼미하게 하였고.'라 전하고 있다. 이는 [A]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하여 슬픔을 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답 ④

정답

④: 이선은 편지를 통해 '생각지도 못하던 남자의 친필을 받아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오.'라 숙향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이선이 개가 물어온 글이 숙향이 필적인 것을 확인하고 떼어본 것은 맞으나, 개가 자기를 향해 와서 입에 물어온 것을 토해놓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을 뿐, 글이 숙향의 필적인 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떼어보진 않았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선은 숙향의 글을 확인하고 노파가 죽은 줄 알고 낙망하였다. 따라서 청살살개를 만나 편지를 받기 전에도 이미 노파가 죽은 줄 알고 있었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선은 개에게 '남자는 너만 의지하고 지낼 테니 빨리 돌아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남자를 잘 보호하여 다오.'라 하였다. 따라서 이선이 개에게 숙향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지낼 테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선은 편지를 통해 숙향에게 묘사된 과거 소문이 들리니 과거에 응시해 급제하면 은혜를 갚

졌다며 자신의 돌아감을 고대해달라 말하였다. 따라서 이선은 숙향에게 곧바로 돌아갈 거라 말하지 않았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8. 답 ③

정답

③: 청삽살개가 종일 흐느껴 울며 기다리는 숙향의 앞에 었드린 것에서는 청삽살개가 숙향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된 조력자의 모습 중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숙향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것은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 노파가 숙향에게 같이 가서 살자고 권유하는 것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모습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노파가 내어준 삶은 나물 한 뭉치는 이상한 향내가 나며 숙향이 이것을 먹자 배가 부르고 정신이 상쾌해졌다. 이는 조력자가 비현실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청삽살개가 숙향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 이선과 숙향의 거리인 수천 리를 하루에 도달하는 것은 조력자가 비현실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숙향과 이선은 가연을 맺은 관계이나, 둘은 떨어져 있다. 이때, 청삽살개는 이선의 편지를 숙향에게 전해 주어서 떨어져 있는 둘의 의사소통에 대한 도움을 통해 주인공의 결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조력자가 주인공의 결연에 도움을 주는 숙향전의 애정소설적인 면모에 해당하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13회차]

이승훈의 시론

1. 답 ④

정답

④: 지문은 '무의미를 통한 의미의 역설'이 독자의 해석적 개입을 촉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의미한 언어 관계를 '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해석적 개입에 머무른다는 설명은 본문 취지와 어긋난다.

오답해설

- ①: 비대상 개념을 통해 대상 재현을 거부하고 새로운 의미 구조를 모색하려 했다는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
- ②: 1960-70년대 시인들이 언어의 한계를 점검·돌파하려 했다는 서술은 본문에 명확히 나타난다.
- ③: 의미의 파잉과 결핍의 상태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 밖에서 의미를 창출하게 만든다는 설명은 지문과 부합한다.
- ⑤: 지문에 따르면 논리적 설명이나 구체적 이미지의 파악이 아닌, 직관적 통찰을 통해 시적 세계에 진입하도록 독자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시독자는 모든 의미가 해체된 지평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논리적 설명만으로 불연속적 구문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의미가 해체된 지평'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진술 역시 본문 논지와 일치한다.

2. 답 ④

정답

④: 비대상은 "논리적 설명이나 구체적 이미지의 파악이 아닌 직관적 통찰을 통해 시적 세계에 진입"하도록 요구한다고 하였다.

오답해설

- ①: 비대상은 대상 세계의 재현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한다.
- ②: 지문에 따르면, 비대상은 단순히 허무나 무위가 아닌, 의미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논리적 연결의 단절은 비대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지, 비대상의 본질적 목적으로는 볼 수 없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비대상은 단순히 외부 실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3. 답 ④

정답

④: 시 속 '너를 만난 날'의 다층적 시간-상태가 한데 놓이면서 언어와 존재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독자의 반응은 언어가 결코 대상 실재를 완전하게 붙잡을 수 없어 언어와 존재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과 일치한다.

오답해설

- ①: '날개 달린 날'에는 지시 기능의 해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시인은 논리적 공백을 접합하지 않는다. 시인은 공백과 파편화된 대상을 제시하고, 독자가 이를 접합해가는 과정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
- ③: 윗글에서 제시하는 깨달음은 격식에서 벗어나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형식과 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한 깨달음의 주체도 무의미 지평에 도달하게된 독자이지, 시인은 아니다.

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시인은 구체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보단 파편화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를 구성하며, 독자는 파편화된 이미지를 활용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 답 ①

정답

①: 지문에서 '파문이 ⑥일어나면서'의 '일어나다'는 '없던 현상이 생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해설

- ②: '불길히 일어났다'는 '희미하거나 약하던 것이 왕상하여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집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희미하거나 약하던 것이 왕상하여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거품이 일어났다'는 '겉으로 부풀거나 위로 솟아오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학생들이 일어남으로써'는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전소설

EBS 수능특강 175쪽 작가 연계
김승옥, 「역사(力士)」

5. 답 ①

정답

①: 윗글에서 젊은이는 처음에는 양옥집에 관하여 존경심을 가졌으나, 얼마 안 가 그 감정은 단지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깨닫는다. 이는 젊은이의 시선으로 양옥집에 대한 자신의 심경 변화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②: 윗글에서 처음에는 젊은이의 시선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후반에는 '나'의 시선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일한 장면의 객관적 서술과 관련이 있지 않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윗글은 초반에 '젊은이'의 이야기를 자신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후반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윗글에서는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특정 집단을 향한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윗글에서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윗글에서 인물 간의 대화는 젊은이가 '어느 쪽이 틀려 있었을까요?'라 묻자, '나'가 '글쎄요.'라 답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야기의 전말에 대해 추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인물의 의구심을 풀고자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답 ③

정답

③: '본질적으로는 두 쪽이 같지 않느냐'에서 두 쪽은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과 양옥집 식구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과 양옥집의 식구들 중에 '한편'이 틀려 있다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나'는 기타 켜는 시간을 할아버지에게 배지받

은 이후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㉔를 통해 그 이유가 '흥이 나지 않아서'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㉔: 앞에서 '나'는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달리고 있으며, 그렇기에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㉔에서 '그 어느 지점이 무한히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며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는 자신의 의문에 관해 반박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㉕: 맥락상 ㉔의 '그의 얘기'는 ㉔ 이전의 윗글 내용 전부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그'는 '그 젊은 이'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㉖: ㉔에서 '어느 쪽'은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과 양옥집 식구들 중 한 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㉖는 앞서 '젊은이'가 품은 의문인 윗글의 젊은이가 품은 의문인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과 양옥집 사람들 둘 중에 한 편이 틀렸었는가?'를 공원의 '나'에게 질문하는 말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답 ④

정답

㉔: '나'는 기타를 튕겨 보다가 할아버지에게 기타 켜는 시간을 배치받은 후로 흥이 나지 않아서 배치받은 시간에 기타를 더 이상 없었다. 따라서 ㉔은 인물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계기라 볼 수 있다. 또한, ㉔은 '나'가 기타를 켜다가 할아버지에게 기타를 켜는 일을 제약받은 결과이기에, ㉔에 대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㉔: ㉔으로 인해 인물은 기타 켜는 일을 제약받았다. 따라서 ㉔은 인물이 제약받게 되는 계기로 볼 수 있지만, 윗글에서 ㉔으로 인해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는 인물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㉕: 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인물은 확인할 수 없다. '나'가 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것도 윗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㉕을 사용하는 인물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㉖: ㉖은 '나'에게 적용되어 기타 켜는 시간이 제약되었으므로 ㉖은 인물을 제약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㉔으로 인해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질타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㉗: '나'가 속해있는 양옥집의 식구들은 ㉖을 따르고 있기에 ㉖은 인물이 속한 집단이 따르는 규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㉖은 규율이 탄생한 원인이 아니라, 규율이 적용된 결과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8. 답 ③

정답

㉔: '나'가 랑 하고 피아노를 울리면 그들이 '나'를 나무라는 것은 '나'의 저항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무라는 것은 방에서 뛰어나와서 '나'에게 무슨 소란이냐고 나무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는 저항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피아노를 랑 하고 울리면 그들이 나무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저항에 실패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아닌, 성공할 것을 예상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㉔: '나'는 양옥집 식구들이 걷고 있다 믿으면서도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양옥집에 대한 그의 이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㉕: 양옥집 식구들은 위대한 가풍, 즉 그 집의 질서에 구속되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식구들의 생활이 빈곤테기의 생활이라 생각한 것은 양옥집의 질서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㉖: '나'는 피아노를 치고 방에서 식구들이 뛰어나와서 자신을 나무랄 것을 기대하며 피아노를 내리쳤다. 이때 피아노를 치자 식구들이 뛰어나오는 것은 질서를 깨버리기 위한 저항에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피아노를 치자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으므로 그는 질서를 깨기 위한 저항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㉗: '나'가 모두가 잘 시간에 피아노를 시끄럽게 치자 할아버지가 나온 것은 '나'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또한, 그가 피아노에서 멀어져 방에 들어가는 것은 저항에 실패하고 질서에 다시 예측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목을 잡은 할아버지의 팔이 역세게 느껴진 것은 질서에 예측시키는 폭력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